

시미즈 산성터

시미즈 산성은 16세기 말에 지금의 이즈하라를 내려다보듯 시미즈 산 능선을 따라 지어진 길고 좁은 성이었습니다. 당시 한반도 침공을 계획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)의 방문에 대비하여 산기슭에 있는 가네이시 성의 방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1590년대 초 국내의 적을 모두 제압하고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한반도를 경유해 명나라(중국)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. 히데요시는 이키와 쓰시마에 15만 명 병력의 항해를 돕기 위한 외성을 쌓으라고 가신에게 명했습니다. 각 거점에는 히데요시가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성이 건축될 계획이었습니다. 이즈하라에서는 쓰시마를 통치하던 소 씨 일족의 본거지인 가네이시 성이 이에 해당합니다.

시미즈 산성은 가네이시 성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. 산등성이를 따라 있는 2곳과 해발 206m의 산 정상에 1곳 등 총 3곳의 평탄한 구루와(曲輪, 토루나 돌담. 해자로 둘러싸인 성곽의 한 구획)와 이를 잇는 전체 길이 약 500m에 이르는 복도 형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구루와는 돌담으로 보강되었습니다. 이치노마루(성의 중심이 되는 부분)와 산노마루(니노마루의 바깥쪽 구루와)는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입구와 돌담의 터가 산 위에 뚜렷이 남아있습니다. 이 2개의 유적에는 산노마루 터까지 올라가 능선을 따라 걷는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. 해발 약 100m의 산노마루에서는 오늘날의 이즈하라 시가지와 항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.